

푸른 음영은 중간 변별력, 붉은 음영은 높은 변별력을 나타냅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의		20	
접선	(9)		9

	평면	구	공간
공간연산		8, 23	6
벡터연산			
정사영		24	

평가요소(정의, 접선 등)와 출제소재(포물선, 쌍곡선, 타원 등)가 한데 뒤섞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합니다만, 평가원은 기하와 벡터 파트 역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출제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평가원은 평가요소별로 1문항, 소재별로 1문항씩 출제하는 원칙을 꽤나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선 08년 9평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때는 구가 말 그대로 대세를 탄 시기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부분의 공간도형 문제가 구와 관련되어 출제됐습니다. 이차곡선 합답형 문항을 출제하는 실험적인 시도가 있었습디만,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본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디다. 재미나게도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때의 실험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유형 자체를 물어버리고 다른 유형으로 출제해 버립니다.

푸른 음영은 중간 변별력, **붉은 음영**은 높은 변별력을 나타냅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의	5(통합)		21
접선			

	평면	구	공간
공간연산			7
벡터연산		9	
정사영			24

08수능입니다. 이차곡선에서 출제된 2문항 모두가 정의를 물어본 것입니다. (합답형 문제를 출제했던 실험이 실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변별력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푸른 음영은 중간 변별력, **붉은 음영**은 높은 변별력을 나타냅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의		8	
접선			20

	평면	구	공간
공간연산		9	12
벡터연산	7		
정사영			25

09년 9평에서 주목해 볼 문항은 7번과 8번, 12번입니다. 09년도 9월 모의평가는 최근 출제되었던 시험 중 가장 실험적이었고,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7번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평면벡터 유형의 시작입니다. 이때는 쉬운 문제였기에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겠지만(08년도 6평의 사차함수 문제처럼), 10년도 9평 이후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1문항씩 출제하고 있고, 결국 매년 출제될 때마다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진화해, 11수능 22번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8번은 타원의 정의를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려는 실험이었지만, 실패했고(우선 사설 문제집에 비슷한 유형이 있었습니다. 06년도쯤에 출제되었던 중앙 모의고사의 문항이 8번과 아주 유사하죠.) 평가원은 09년, 10년에 이차곡선의 정의와 관련된 문항을 출제하지 않게 됩니다.

12번은 공간도형 합답형 문항인데, 역시 시중 문제집과 유사한 문항이었고 합답형에 맞는 풀이과정을 전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역시 사장되고 출제되지 않습니다.

푸른 음영은 중간 변별력, 붉은 음영은 높은 변별력을 나타냅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의			
접선	21(통합)	19	

	평면	구	공간
공간연산		25	
벡터연산		22	20
정사영			24

9평에서의 실험이 실패했기 때문에 09수능은 9월 모의평가와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평가원은 정의 문제를 더 출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이차곡선에서 접선 문제만을 출제하기 시작합니다. 25번은 지금까지 출제되어왔던 구의 공간연산 유형을 계승하고 종합한 화통점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수능 23번은 평이 좋지 않았는지 다시 출제되지 않았고, 이후 구의 공간연산 문항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09수능의 기하문항들은 여러 모로 7차수능 초기부터 이어져 왔던 흐름의 종합이자 완성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이후 평가원은 09수능과 다른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푸른 음영은 중간 변별력, 붉은 음영은 높은 변별력을 나타냅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의			
접선			12(점근선)

	평면	구	공간
공간연산		23	
벡터연산	20		(20)
정사영		15	

10년 9평입니다. 평가원이 이차곡선을 포기해 버렸는지 여전히 정의 문제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09년도 9평에 처음 등장한 평면벡터의 연산을 좀 더 심화시킨 문제가 20번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답이 속출했습니다. 실험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10수능 14번의 벡터 합답형 문항으로 이어지고, 이후 평면벡터 문항이 꾸준히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23번은 지금까지 평가원이 출제한 문항 중 난이도만으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도 평가원의 '실험'으로 분류하고 있고, 평가원이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번은 평가원이 소재고갈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1년도 9평 25번의 의미 있는 시도를 제외하면, 09년 이후 정사영 문항도 완전히 패턴화되기 시작합니다.

푸른 음영은 중간 변별력, 붉은 음영은 높은 변별력을 나타냅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의			
접선	4		

	평면	구	공간
공간연산		20	5
벡터연산	14		
정사영			25

10수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차곡선에는 접선 유형만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본수능에 벡터 기하 문항이 등장합니다. 맞는 것이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지만 접근법을 까다롭게 여겼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25번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출제의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접근방법을 약간 비틀어놓았을 뿐이지 기존의 정사영 문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타원 이용은 평가원이 의도한 정석 풀이가 아니고, 때문에 이차곡선의 접선 문항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접근해도 풀립니다만)

푸른 음영은 중간 변별력, **붉은 음영**은 높은 변별력을 나타냅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의		20	
접선			4

	평면	구	공간
공간연산			2, (25)
벡터연산	14		
정사영			25

11년 9평을 봅시다. 이차곡선의 정의를 묻는 문항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중 문제 집과 유사한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평가원다운 간결함과 센스는 사라졌습니다. 이는 수능이 학력고사화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14번은 아주 쉬운 내용을 출제했음에도, 객관식인데다가 합답형인 것을 감안하면 킬러문항 수준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미 고착화되어 많은 기출문제가 축적된 다른 유형과는 달리, 평면벡터 유형은 갓 출제되기 시작한 새로운 유형입니다. 문제를 많이 비틀지 않고 원리적으로 출제하더라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중학교과서 예제수준인 11수능 22번), 평가원은 평면벡터 문제를 계속 출제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평면벡터가 12입시의 당락을 가를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번은 새로운 사고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항이 본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 다만, 09년도 9평에 잠깐 출제된 후 묻혔다가 1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평면벡터 문제처럼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는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푸른 음영은 중간 변별력, **붉은 음영**은 높은 변별력을 나타냅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의	14		
접선		5	

	평면	구	공간
공간연산		21	3
벡터연산	22		
정사영			11

11수능입니다. 25번 유형이 정사영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9평에서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 문제는 이제 정사영 유형도 등비수열과 같이 기계적인 풀이법이 통하는 유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평 25번을 제외하면, 10수능 이후 본격적인 공간도형 문제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2012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